

제 4회 『애덤 스미스 입문』_에이먼 버틀러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19년 10월 27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 자본의 축적

잉여의 창출은 교환과 전문화가 가능하게 한다. 이전 문화는 더욱더 큰 잉여를 쌓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은 다음에는 새로운, 전용의, 노동 절약적인 장비에 재투자될 수 있다. 그것은 선순환이다. 이러한 자본 증가 덕분에, 번영은 커지는 파이가 된다.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이 더 부유해지기 위해 더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 그와는 반대로, 부가 커짐에 따라, 전 국가가 더 부유해진다.

• 화폐

스미스에 따르면, 화폐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단지 교환 수단일 뿐이다. 실질 부는 화폐가 사는 것에 있지, 주화들 자체에 있지 않다. 결국, 금과 은의 구매력은 변동한다. 그리고 오늘 한 기니의 소득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기니를 내일 쓸지 모르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소득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그 기니를 다음 날 쓸지 모르고, 세 번째 사람의 소득을 제공한다. 그래서 유통 중인 화폐의 양은 명백히 국가의 총 소득과 같지 않다.

실질 부가 화폐에 있지 않는 것처럼 돈을 버는 이유도 소비에 있는 것이다.
무조건 아끼는 것은 부를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교환의 목적을 망각한 행위이기 때문.

유통 중인 화폐를 국가의 총 소득과 같다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된다.

• 소비와 투자

스미스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구분, 총 소득과 순 소득 - 총 소득에서 그것을 얻는 비용을 뺀 것 - 사이의 구분을 한다. -중략- 스미스는 노동을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으로 나눈다. 생산적인 노동은

로 그는 그 비용을 초과하고 - 제조업 직원의 노동과 같이 - 재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잉여를 낚는 작업을 의미한다.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그는 의사들이나 음악가들, 법률가들이나 꼭두각시를 부리는 사람들, 공무원들이나 광대들의 그것과 같이 즉각 소비되고, 재투자될 수 있는 수입을 낚지 않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는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 사이의, 오늘날 경제학에 아주 기본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

자본은 또한 잘못된 투자 결정에 의해서도 소진될 수 있다. 이것이 국가의 금 및 은 적립금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확실히 그것의 생산 능력을 줄인다고 그는 중상주의자들에게 환기시킨다. 그리고 만약 법의 지배가 없다면, 자본은 도둑맞을 수 있 - 어서 사람들이 애초 그것을 축적할 유인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큰 국가들은 사적 방탕이나 부실 관리로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데, 하기가 그들이 때때로 공적 방탕이나 부실 관리로 가난해지긴 한다.' -중략- 정부들의 거의 모든 수입은 따라서 비생산적인 고용인들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스미스는 관찰한다. 그래서

왕들과 대신들이 사인들의 경제를 돌보아주는 척하는 것은 . . . 최고로 뻔뻔하고 건방지다. . . . 그들이 자신은 항상. 그리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회에서 가장 씩씩이가 헤폰 사람들이다. . . . 만약 그들의 낭비가 국가를 망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민들의 낭비는 결코 국가를 망치지 않을 것이다.

• 자본에 관한 추가적인 성찰

그러나 2권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제품의 저축 부분은, 그 제품 모두를 소비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우리의 생산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고, 이것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미래에 우리의 제품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의 확장 순환이 - 고 우리의 은행 금고에 있는 금속의 양과 무관하 - 다.

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더 전문적이고 더 노동 절약적인 과정들이 개발될 수 있다. 분업이 심화될 것이고, 이것이 다음에는 더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스미스는 말한다. 그러므로 자본이 확대됨에 따라, 임금이 오를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시장 경제는 국부를 증대하는 데 유례가 없고, 이 부는 바로 가장 가난한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확산된다. 참으로, 이 체제를 채택하는 부유한 국가들의 가난한 사람들은 채택하지 않는 가난한 국가들의 부자들보다 더 잘 산다. 그것은 세계화 메시지다. 국가들은 만약 자기들이 여전히 자급자족하려고 하거나 다른 국가들에 대해 무역 장벽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더 잘 산다.

*사담 - 저축과 소비

우리는 항상 저축은 옳고 소비는 나쁘다는 생각을 배웠지만, 소비를 많이 해야 한다. '부'라는 것은 돈을 많이 들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화폐란 단지 교환 수단일 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 욕구들과 많이 교환되지 않는 돈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돈을 버는 이유는 소비를 위함이다. 소비라는 것은 또한 자기 정체성을 위한 선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자기선택, 자기표현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기의 불호를 표현하지 않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뚜렷해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소비를 통해 얻는 것은 만족뿐만이 아니라 지식이다. 왜냐하면 선택의 대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내줘야하는데, 그 선택은 자신이 내 주는 것보다 좋아야 할 것이기에 누구나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선택하기 위한 지식이 반드시 먼저 필요하고, 그런 선택의 결과들로 인해 우리는 소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는 상인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물건을 사고팔면서 가격 외의 기능들을 이해하고 습득하게 되는 방식과도 같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것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지식들이 쌓이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상인들이 자신이 평소 관심 있는 분야나 익숙한 환경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소비자가 그 분야에 관해 익숙해지다보니 생산자로 진화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미련한 방법은 아무런 소비 계획 없는 저축이다. 이런 것이 노예의 도덕이며, 사람을 가난하고 비참한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